금융소비자의 위험선호와 성격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1)]

김석환[2)] 강형구[3)]

Abstract

본 연구 목적은 MBTI®에 의해 구분되는 인간의 성격유형에 따라 금융투자자들의 위험선호의 차이 유무, Private Banker의 투자조언의 수용, 그리고 Private Bank Service의 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MBTI®의 성격유형별 주기능 사용의 차이에 기인한 개인의 특성이 위험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험군인 고액자산가(HNWI, VVIP)와 대조군인 학생의 MBTI® 성격유형을 개별로 검사하고 Holt and Laury (2002)와 Weber et al. (2002)의 설문을 활용하는 실증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Holt and Laury(2002)의 Lottery연구에서 고액자산가와 일반 대조군 그리고 MBTI®의 주기능분류(ST, NF)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였다. 특히 고액자산가의 경우ST와 NF 그룹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Weber et al.(2002)의 위험 감수를 측정하는 심리측정 요인 중 Gamble(g) Recreation(r)의 특성이 고액자산가에서 위험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특성 또는 금융과 관련 없는 취미생활이 개인의 위험선호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의 문헌들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MBTI®의 선호지표점수에 따라 위험선호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MBTI® T점수가 높을 경우 위험선호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액자산가그룹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MBTI® 유형도표의 태도지표에 의해 구분된 유형들에 따라 전체 금융자산 대비 Private Banker를 이용하는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태도유형 EP의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이용비율수준이 낮아 MBTI®로 분류된 성격유형에 따라 전체금융자산 대비 Private Banker의 이용수준에도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 Risk Preference, Personality Types, Financial Investor, Financial Consumer, HNWI(High-Net Worth Individuals), UHNWI(Ultra-High-Net Worth Individuals), MBTI®, Private Banker, Private Banking Service

---

1) 본 연구는 김석환의 박사학위논문 제4장의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하였음

2) 제1저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simpple@hanyang.ac.kr

3)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부교수 hyoungkang@hanyang.ac.kr

제1절 서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금융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기관의 경우 금융의사결정에 대한 다수의 의사결정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 선호에 따른 금융의사결정의 영향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경우 다수의 금융투자의사결정 경로를 가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위험에 대한 선호 그대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실정이다.

2009년 자본통합시행법 이후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자와 투자상담을 진행하기 전 투자자의 위험선호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위험선호에 적합한 투자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을 관련 법령에서 의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의 위험선호 측정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하게 처리하거나 그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실무에서는 주로 자기응답식 설문이나 인구통계학 특성 등을 고려한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개인 투자자의 위험선호를 측정,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를 통틀어 실무으로는 이러한 자기응답식의 위험선호 측정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스스로 본인의 투자유형이나 위험선호를 평가하게 하거나 실물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위험선호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Federal Reserve Board에서 3년마다 조사하는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에서는 금융 투자를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투자유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국내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으로 개인 투자자의 투자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자기응답식 질문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인 투자자의 위험선호를 측정할 수는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일 응답 형태의 방식, 응답자의 스케일 사용의 이질성, 설문 해석상의 이질성 때문에 측정의 타당성에 있어서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김혜영·강영선, 2015; 민경실·송인경, 2014; 이 홍, 2000).

이러한 중요성과는 별개로 투자자들은 본인의 위험선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본인이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투자자산에서 생성되는 기대수익과 이에 수반하는 위험의 수용성 정도와의 불일치는 일반 금융투자자에게 심리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투자자산의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자신의 기대수익률과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금융투자행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금융기관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조언을 하는 전문가집단은 개인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고객의 위험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여 알려주고 이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여 투자상품의 선택이나 관련 조언을 할 필요성이 있다. 위험선호에 관련한 기존연구는 위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으로 개인의 심리, 사회・경제 특성 및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한 탐색적인 연구로 위험선호의 측정과 분포(Zaleskiewicz, 2001; Weber, 2002; Holt and Laury 2005; 배은성 외 2인 2016), 위험선호에 따른 집단 구분 및 특성(차경욱·정다은, 2013) 등과 투자자들의 인구통

계학적 개인특성 등 전통적인 변수들이 위험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Cong and Hanna, 2007; Dohmen et al. 2011; Sung and Hanna, 1996).

위험선호에 대한 또 다른 분야에서의 기존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에 기초한 차이점 등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인구특성 등을 넘어선 인간의 타고난 심리적 특성 또는 성격유형 등이 어떻게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C. G. Jung의 심리유형론을 기반으로 Isabel Myers와 Katherine Briggs가 개발한 MBTI®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유형은 16가지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유형과 금융의사결정간의 관계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한승조 외 2인(2016)는 MBTI® 성격유형과 인지 행동적 투자결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MBTI®와 관련된 3가지 설문을 400명의 피험자로부터의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인지 행동적 투자 처분 점수를 기반으로 E, S 및 T 유형을 보유한 잠재 투자자는 I, N 및 F 유형을 가진 사람들보다 투자로 인한 위험을 잘 견디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ENF 조합을 가진 투자자 그룹은 다른 그룹들 사이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반대로 ISF가 있는 그룹들은 투자위험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C. G. Jung이 제창한 인간의 성격유형론과 이를 기반으로 고안된 MBTI®는 현대사회의 여러 산업분야의 다방면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범용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Isabel Myers와 Katherine Briggs가 개발한 성격유형 검사지의 학문적 가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논쟁으로 기존 심리학에서 연구된 성격특성 모델과 MBTI®의 성격유형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McCrae & Costa(1989a)는 MBTI®를 Jung의 심리유형이론의 관점에서 평가하였으며, 성격특성검사(NEO-PI, Costa & McCrae, 1985b)의 자기보고와 동료평가를 통해 측정한 5-성격특성 모형을 남자 267명, 여자 201명에게 제공하고 측정하였다. 이전의 연구와 평가와는 달리, MBTI®가 진정으로 이분법적인 선호나 질적으로 뚜렷한 성격유형을 측정한다는 견해에 대한 지지는 없었고, 대신, MBTI®는 비교적 독립적인 4가지 선호지표를 측정하며 MBTI®의 4가지 선호지표가 정상 성격의 5가지 주요 특성 중 4가지 특성을 측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McDonald et al.(1994)는 여성 161명과 남성 48명을 대상으로 MBTI® 선호유형지표 점수와 NEO 성격특성지표 점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MBTI® 내향-외향(I-E)지표는 NEO-PI의 '외향성'과 상관성이 있고 MBTI® 감각-직관(S-N)지표는 NEO-PI의 '개방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MBTI® 사고-감정(T-F)지표는 NEO-PI의 '친화성'과 상관관계가, MBTI® 판단-인식(J-P)지표는 NEO-PI의 '성실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는 McCrae & Costa(1989a)와 일치한다. Furnham, A. (1996)의 연구는 컨설팅 및 교육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MBTI®와 인성에 관한 학술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의 하나인 NEO-PI(5가지 요인), 두 성격 분류 척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인 160명이 NEO-PI와 MBTI® 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NEO-PI의 '친화성' 점수는 사고-감정(T-F) 선호지표와만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NEO-PI '성실성' 점수는 사고-감정(T-F) 선호지표와 판단-인식(J-P) 선호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다. NEO-PI의 '외향성' 점수는 외향-내향(E-I) 선호지표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NEO-PI의 '신경증' 점수는 MBTI® 하위 선호지표와 관련이 없었다. NEO-PI의 '개방성' 점수는 MBTI®의 네 가지 선호지표와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데 특히 감각-직관(S-N) 선호지표와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다른 유사한 비교연구(McCrae & Costa, 1989a; McDonald et al., 1994)들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와 비슷한 국내연구로는 Yoon, C. H., & Lim,

D. S.(2018)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충동적, 강박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5가지 요인의 영향과 MBTI® 선호지표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은 Big Five의 5가지 요인인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뿐만 아니라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하는 개인의 MBTI® 기능 선호도를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그 결과 MBTI® 선호지표는 대부분 강박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MBTI® 선호지표와 관련이 있는 Big Five의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강박구매 행동에 현저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Big Five는 온라인쇼핑에서는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구매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혀 Big Five와 연관된 MBTI®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최근의 연구는 초 연결사회의 장점을 살리고 빅 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그간 전통심리학 성격유형과 MBTI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제한적인 피험자 숫자를 극대화 시킨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컴퓨터로 150만 개의 성격 목록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여 2018년 9월 17일 'Nature Human Behavior'에 사람의 성격을 4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Gerlach et al., 2018).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Big Five로 대표되는 기존 심리학계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성격유형에 대한 학문적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인간의 성격유형에 관한 시계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MBTI®(CPP Inc. USA)를 이용한 인간의 성격유형 분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동시에 MBTI®를 이용한 연구결과의 당위성에 학문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MBTI®로 정의되는 인간의 성격유형이 금융투자자자 각 개인의 위험선호와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투자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학계 최초로 실험군(고액금융자산가: HNWI, 이하 VVIP)과 대조군(학생)의 MBTI®(Form GS형)의 결과와 설문을 이용한 연구를 설계하였다. 또한 실험군의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금융기관의 재무컨설턴트(Private Banking Assistant; Private Banker)의 역할 규명을 MBTI® 성격유형별로 검증하는 실험설계를 하였다.

고액금융자산가인 VVIP들의 현금보유 편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시중 각 은행들은 VVIP전담 센터 등을 확대 설립하거나 개편하고 차별화된 재무컨설턴트 등 고급인력을 투입하여 이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시중 은행들의 다양한 노력이 VVIP들의 현금자산을 유치하고 투자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연구자는 이러한 영향들 중에 재무컨설턴트의 역할과 영향에 주목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VVIP의 투자행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는 위험선호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가 완성되고 자산 배분, 투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이지만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 배분, 투자 단계에서 재무컨설턴트의 조언과 유용한 정보 제공 등의 재무컨설턴트의 기본적 역할 또한 VVIP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행위에 많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실험을 설계하였는데 실험을 통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0조(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위험선호에 따른 투자의 유형을 모든 투자자에게 설명함에 있어 금융투자자 자신이 명확하게 자신의 위험선호 유형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설명력 있는 측정지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한 실험에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등장하는 금융기관의 재무컨설턴트의 역할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무

컨설턴트 서비스가 재무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에도 확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재무컨설턴트로 하여금 금융투자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휴리스틱의 차이를 감안케 하고 적절한 투자권유를 통하여 과거, 금융기관의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투자유치 관행으로부터 금융투자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둘째, 재무학(Finance)분야에서 투자자 감성(investor sentiment)를 연구 함에 있어 MBTI®의 유용성과 응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Gerlach et al.(2018)의 연구는 과거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인간의 성격유형(personality types)의 존재에 대한 과학계의 인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동안 성격유형 검사로 가장 보편적이고 유명한 MBTI®에 대한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재평가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리학자, 과학자들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낸 성격유형의 존재는 인간의 성격유형을 16개로 분류해 주는 MBTI®를 이용한 향후 연구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학문의 융·복합적인 연구차원에서 이러한 MBTI®를 재무학에 적용하여 그동안 자세히 연구되지 못했던 투자자의 위험선호와 성격유형간의 관계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선행연구

1. 성격(Characteristic)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격은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s)과 성격유형(personality types)을 이용하여 분류하곤 한다. 여기서 성격특성의 종류로는 5가지로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 구분되어 있으며,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성격을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우리는 성격유형이라 칭한다.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분야로 알려져 있는 경영학과 행정학 등에서는 이러한 성격유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공계열과 같은 과학분야에서는 쉽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격검사(personality tests)로 알려진 검사도구들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성격유형을 분류 및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성격검사의 도구로는 MBTI®가 존재하며, 다양한 성격검사가 현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유형검사와 성격유형의 존재여부에 대해 과학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실존하는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Gerlach et al.(2018)는 사람의 성격유형이 평균형(average), 내성적(reserved), 자기중심적(self-centered), 롤모델형(role model)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과학자 집단이 금기시한 성격유형화 연구를 과학자들이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성격을 유형화 하여 발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C. G. Jung의 심리유형론을 기반으로 Isabel Myers와 Katherine Briggs에 의해 개발된 인간의 성격유형은 16가지로 구분한 MBTI®의 가치와 유용성이 다시금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는 점이다. MBTI®가 개발되어 정립되어온 기간 동안 교육학, 상담학, 경영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성격유형을 이용한 가치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심리학자 등 과학자들이 성격유형 연구를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비판했던 가장 큰 원인은 성격유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빅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Gerlach et al.(2018)는 OCEAN[1)]에

1) 성격특성이란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을 말한다.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의 머리글자를 따

근거한 설문을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약 15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지구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유형을 평균형(average), 내성적(reserved), 자기중심적(self-centered), 역할모델형(role model) 이들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저자들에 따르면 연령의 변화에 따라 성격의 유형이 변화할 수 있고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분되는지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개인의 성별은 성격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높은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롤모델형 성격유형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별은 성격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 또한 성격유형에 면화를 줄 수 있는 요소로써 연령에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적응도가 보다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성격유형 역시 자기중심적인 성향에서 사회적인 성향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Ozer and Benet-Martinez(2006)은 성격의 측정은 여러가지 중요한 결과에 대해 동시성과 예측적인 관계가 있다. 휴리스틱으로서 Big Five factors를 사용하면서 많은 결과적인(consequential) 관계가 밝혀지고 있다. 성격은 행복과 육체적 심리적 건강과 정체성에 연관이 있으며 또한 개개인의 수준에서 동료와 가족과의 관계의 질과 연관이 있으며. 직업 선택과 만족, 이에 대한 성과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사회 제도적 측면에선 참여도와 범죄행위,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cCrae, Costa and Ozer(2006)는 재현 가능한 성격 타입에 대한 최근 가설을 연구하기 위해, California Adult Q-Set(CAQ)에서 1540개의 자기-분류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들에 대한 전통적인 팩터 분석은 Five-Factor Model을 보였다. 임의로 샘플한 데이터에 대한 반대의 팩터 분석은 이전에 알려진 어떠한 person-factors도 재현되지 않음을 보였다. 인간의 유사성에 대한 중요한 팩터들은 전적으로 Five-Factor Model에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며, 이는 CAQ에서의 성격타입에서 재현 가능한 성격 타입이 없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R. B. Cattell(1943, 1945)이 그의 “성격 서술(description)”의 공식화를 위해 영어로 된 특징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45년간 많은 연구자들이 5가지의 수직적인(orthogonal) 요소에 기반한 대체 구조를 제안했다. 5-factor model의 보편성은 포괄성인 특징 용어들에 걸쳐 서술된다. 3가지 연구 중 첫번째에선, 75개 군집으로 분류된 1431의 특징 형용사들이 분석되었다. 두번째 연구에선 133개의 동의어 군집으로 묶인 479가지의 평범한 용어들이 두 샘플의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에서 같은 구조를 드러냈다. 3번째 연구에선, 339개의 특징 용어로부터 파생된 100개의 군집이 향후 연구에서 Big-Five 표식으로서 잠재적 유용함을 보였다(Goldberg, 1990). Asendorpf et al.(2001)은 그들의 연구에서 재현된(replicated) 군집 분석, Q-factor 분석을 이용하여 Big Five에 대한 성인들의 자기 기술, 부모의 Big Five, 그들의 자녀의 Q-Sort judgments를 포함하는 일련의 연구에서 3가지 원형적인 성격 묘사 패턴(resilient; 충격에 잘 견디는 사람, overcontrolled; 과잉 통제하는 사람, and undercontrolled; 통제가 결여된 사람)이 있다는 가설을 테스트했다. 나이, 판단, 방법(method)에 거쳐서 3가지 프로토타입들과 일관성이 정량적으로 측정되었고, 모든 연구들에서 이 가설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3가지 프로토타입과 성격, 사회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과의 상관관계는 아동과 성인에 상관없이 undercontroller들의 외면화를 나타냈고, overcontroller들의 내재화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아동과 성인 모두에 대해 성격 묘사의 3-프로토타입 모델에 대한 확증을 제시하였다.

OCEAN이라고 한다.

구분되는 성격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은 보통 Big Five 혹은 Five-Factor model의 차원에서 성격유형을 찾아왔다. Ashton and Lee(2009)는 대형의 성인 집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격유형에 대한 연구를 HEXACO[2] 모델의 영역까지 넓히고자 했다. 3개에서 7개의 군집을 가진 일련의 군집 분석에서, 성격유형으로 설명되는 HEXACO 차원에서의 분산 비율은 작았고, 성격유형과 해당 차원에서의 예측되는 유효함은 Big Five 성격 요소에 대한 레포트와 비교되었으며, 그 결과 가장 큰 HEXACO 유형 조차도 HEXACO 차원의 절반 정도 밖에 설명을 못하였다. 따라서 HEXACO 프레임워크의 차원은 유의미한 성격유형을 보여주지 못함을 밝혀냈다. Caspi and Silva(1995)는 임의 추출된 800명 이상의 연구 대상에서 3세의 행동 양식이 18세에 개인 특성과 연결되는지 연구했다.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행동 평가를 기반으로 5가지의 기질(Undercontrolled; 통제가 결여된, Inhibited; 감정표현을 거리끼는, Confident; 자신감 있는, Reserved; 내성적인, Well-adjusted; 적응을 잘하는)로 그룹을 나누었다. 이 그룹원들은 18세 때 자신이 기술한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통해 성격 스타일이 측정되었다. 결과, 시간에 따른 연속성을 띄었다. Undercontrolled 그룹의 어린이는 충동성, 위험 추구, 공격성, 사람 사이의 소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inhibited 그룹의 어린이는 충동성, 위험 추구, 공격성, 사회적 역량이 낮았다. Confident 그룹은 충동성에서 점수가 높았고, Reserved 그룹은 사회적 역량의 점수가 낮았고, Well-adjusted 규범적인 행동을 보였다. Specht, Luhmann and Geiser(2014)는 독일과 호주에서 온 국가를 대표할 만한 패널 연구[3]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인과 노인에 걸친 성격 타입을 측정함으로써 성격의 일관성과 변화를 측정했다. 이에 대한 Latent Profile Analyses(LPA; 잠재프로파일 분석) 와 Latent Profile Transition 분석은 4가지 중요한 발견을 보였다. 첫째, 독일 샘플 내에선 3개의, 호주 샘플 내에선 4개의 해석가능한 성격유형 타입을 발견했다. 둘째, 이 성격유형 타입은 전 연령대에 걸쳐서는 일정하지만 남녀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셋째, 나이는 각 성격유형 그룹으로 분류된 개인의 수와 관련이 있다. 넷째, 성별과 나이 동일 집단에서 4년간에 걸쳐, 성격유형의 강한 동일성이 있다. 노인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관성을 보였다. 종합하면, 두 나라에서 성별, 나이, 시간에 걸쳐 매우 일관적인 것을 확인했다.

2.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 성격유형검사)[4]

김정택·심혜숙(2013)과 김정택·심혜숙·제석봉(1995)에서 저자들은 MBTI®에 관한 제반 설명과 함께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MBTI®는 Isabel Biggs Myers와 Katharine Briggs에 의해 제작된 성격유형검사로, 융의 심리유형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오늘날 MBTI®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이고, 매년 2백만 명 이상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형이론에 대한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MBTI® 역사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해석과 활용 그리고 관련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향상되어왔다.

2) https://en.wikipedia.org/wiki/HEXACO_model_of_personality_structure
3) 동일한 집단에 대한 연구
4) MBTI®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김정택·심혜숙(2013). MBTI Form M 매뉴얼. Seoul: Assesta.'; '김정택·심혜숙·제석봉(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의 내용 중 일부를 ㈜한국MBTI연구소의 양해하에 직접 인용함.

MBTI®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도록 해주고, 이들과의 차이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론은 외관상 보이는 인간의 행동이 우연을 동반한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연 때문이 아닌 몇 개의 기본적이고 관찰 가능한 선호성에 따른 논리적인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다.

MBTI®를 개발한 Isabel Myers의 주된 목적은 개인이 각자의 성격유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Carl Jung(1921-1971)의 유형이론(Psychological types)를 현실에서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MBTI® 개발 과정의 모든 단계와 모든 문항에는 Jung의 이론이 고려되었다.

MBTI®의 근간이 되는 심리유형론의 창시자 Carl Gustav Jung(1921-1971)은 스위스 출생의 정신과의사로 유형이론은 Jung이 성격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외향적인 사람(extraverts)과 내향적인 사람(introverts)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관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Jung은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기능인 감각(sensation)과 직관(intuition), 우리가 인식한 것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판단기능인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을 추가하였다. Jung은 심리기능을 "다양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원칙으로 존재하는 심리활동의 특정형태(Jung, 1921-1971)"라고 정의 하였고, 각 개인에 따라 외향성과 내향성이 습관적으로 우세한 심리기능과 함께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주기능(dominant function)이란 용어는 감각, 직관, 사고, 감정과 같은 심리기능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장 자주 그리고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직접적이거나 "지배적인(domination)"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후에 Myers와 Briggs는 심리기능이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인 특징을 지닌 모형이라는 Jung의 신념을 바탕으로 판단(J)-인식(P) 선호지표를 첨부함으로써 Jung의 이론을 확장하였고, 주기능을 돕고 보완하는 부기능(auziliary function)에 대한 Jung의 설명을 발전시켜 결론적으로 Jung의 이론은 16가지 성격유형으로 세분화되었다.

Jung이 주장한 4가지 심리기능인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은 의식과 관련된 심리기능을 대표한다. 가장 의식적이거나 지배적인 심리기능이 나머지 3가지 심리기능의 의식 정도를 결정짓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MBTI®에서 4가지 심리기능은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의식적인 정신 활동이다. 판단기능 중 감각(S)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의 완전함을 추구하고, 직관(N)은 가능한 먼 미래의 상상과 가능성에의 도달을 추구한다. 또한 인식기능 중 사고(T)는 원인과 결과의 객관적인 논리에 따른 합리적인 질서를 추구하며, 감정(F)은 중요한 개인적인 가치의 조화와 유지에 따른 합리적인 질서를 추구한다. 이러한 심리역동의 이론적인 핵심은 4가지 심리기능이 전문화된 각기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활동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MBTI®는 네 가지의 분리된 지표(index)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표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선호경향(선호도 또는 선호성) 중의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데, 융의 이론에 의하면 이 선호경향이 인식과 판단의 사용 경향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선호경향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주의를 하느냐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네 가지 선호경향 중 첫 번째는 외향과 내향(EI, Extraversion-Introversion)이다. EI지표는 융(1921-1971)이 말한 의미대로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를 밝히기 위해 제작되었다. 융은 외향형과 내향형이 상호보완적인 태도로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관심의 방향이 외부세계 또는 내부세계인가를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주로 외부세계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 바깥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자기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띤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주로 자기 내부세계로 향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띤다.

두 번째는 감각과 직관(SN, Sensing-iNtution)으로 SN 지표는 양 극의 두 가지 인식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제작되었다. 어떤 사람은 주로 감각(S)을 통해 인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감을 통한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의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각보다는 덜 분명한 직관(N)을 통해 인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사실이나 사건의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나 관계 또는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한다.

세 번째는 사고와 감정(TF, Thinking-Feeling)으로 TF 지표는 판단을 할 때 양 극의 두 경향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제작되었다. 어떤 사람은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주로 사고(T)를 통한 논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하려고 한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주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감정(F)에 따라 결정을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지표는 판단과 인식(JP, Judgement-Perception)으로 JP 지표는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즉, 우리 삶에 있어서의 외향적 측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판단(J)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판단과정(사고나 감정)을 주로 사용한다. 인식(P)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인식과정(감각이나 직관)을 주로 사용한다.

가. 유형도표

1). 심리기능(Psychological Function)

유형도표의 세로줄을 보면 4가지 심리기능을 살펴 볼 수 있는데, Isabel Myers는 이 심리기능이 선호집단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직업선택 등에서 가장 많이 관여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집단은 인식(S와 N)과 판단(T와 F)의 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형의 특징은 이들 심리기능의 선호된 사용에서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C. G. Jung에 의하면, 심리기능이란 개인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 그 개인의 고유한 반응양식을 가지게 하는 일관된 내재적 심리경향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이 있다.

[표 4-2] 인식과 판단의 조합

선호하는 사람들	ST 감각과 사고	SF 감각과 감정	NF 직관과 감정	NT 직관과 사고
주의 초점	사실	사실	가능성	가능성
대처양식	객관적 분석	인간적인 온정	인간적인 온정	객관적 분석
경향성	실질적이고 사실적	동정적이고 우호적	열정적이고 통찰	논리적이고 독창적
능력 및 범위	사실과 사물을 다루는 기술적	사람을 위한 실질적인 원조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발전

	인 영역	서비스	이션	

① ST(생산성) :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유형

ISTJ			
ISTP			
ESTP			
ESTJ			

4가지 감각 사고(ST) 유형들에게 있어서, 감각 또는 사고, 이 두 기능 중 하나는 주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부기능이다. ST 사람들은 인식을 위해서 감각을 사용하고, 판단은 주로 사고에 의존한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이라는 것은 오감(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아보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수집되고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ST 유형은 자신이 신뢰하는 것이 사고(T)이기 때문에,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제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직선적이고 논리적인 추론과정과 객관적인 분석으로 사실에 관한 결정에 이른다.

② SF(인간성) :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유형

	ISFJ		
	ISFP		
	ESFP		
	ESFJ		

감각 감정(SF) 유형들에게 있어서, 감각 또는 감정, 이 두 기능 중 하나는 주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부기능이다. ST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SF 사람들도 인식을 주로 감각에 의존하지만 판단을 위해서는 감각을 선호한다. 이들은 또한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모을 수 있는 사실에 관심이 있지만, 자신이 개인적인 가치체계에 기초한 주관성을 가지고 결정에 접근한다. . ST와는 현저하게 달라서, 이들 SF는 사물에 관한 사실보다는 사람에 관한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SF 유형은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

③ NF(진실) : 열정적이고 통찰적인 유형

		INFJ	
		INFP	
		ENFP	
		ENFJ	

직관 감정(NF) 유형에게 있어서, 직관 또는 감정이라는 2가지 심리기능 중 하나는 주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부기능이다. 인식하는데 있어서 직관을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에는 감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SF 사람들과 같은 인간적인 따뜻함을 지니고 있다. NF 유형은 복잡한 의사소통에 관심이 많고, 이들의 직관은 임의의 사실,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수사학적인 관계의 근저에 놓여 있는 패턴들에 대한 관심을 복잡한 의사소통에 집어넣는다.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이들이 직관적인 통찰을 사용할 때, 관심을 통해 나타난다.

④ NT(진실) :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유형

			INTJ
			INTP
			ENTP
			ENTJ

직관 사고(NT) 유형에게 있어서, 직관 또는 사고라는 2가지 심리기능 중 하나는 주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부기능이다. NF 사람들처럼, NT 사람들도 인식에 있어서는 직관을 선호하지만, 판단에 있어서는 사고의 객관성을 선호한다. 이들은 종종 인간문제에 주의 초점이 맞춰진 영역에서 기술적이고, 과학적이며, 이론적이거나 또는 실행 가 능한 가능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2). 4가지 태도지표

유형도표의 가로줄은 에너지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과 내향(E-I),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생활양식인 인식과 판단(J-P)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① IJ : 결정지향적 내향형

ISTJ	ISFJ	INFJ	INTJ

4가지 모든 내향 판단 IJ 유형은 주기능을 내향 인식기능으로, 그리고 부기능을 외향 판단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IJ 유형은 내관적이고, 끈기 있는데, 결정을 뒤엎는 확실하고 강력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거나 결론에 선행되는 확실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들을 확신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

② IP : 적응력 있는 내향형

ISTP	ISFP	INFP	INTP

4가지 모든 내향 인식(IP) 유형은 주기능을 내향 판단기능으로, 그리고 부기능을 외향 인식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IP는 내관적이고, 작은 일에도 적응을 잘한다. 이들의 주기능인 판단기능이 성격에 있어서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들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③ EP : 적응력 있는 외향형

ESTP	ESFP	ENFP	ENTP

4가지 모든 외향 인식(EP) 유형은 외향 인식기능(S 또는 N)을 주기능으로, 그리고 내향 판단기능(T 또는 F)을 부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EP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사회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찾는다. EP는 새로운 외부 상황에 더 빨리 적응한다. 이들의 주기능인 외향 인식기능은 스스로 열망하면서 외부세계를 끌어들이도록 이끌고, 외부세계를 신뢰하도록 이끈다. 이들의 낙관주의는 세계를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유형들에게는 엄청난 위험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EP는 낙관주의로 새로운 기회들을 포용한다. 그리고 장애들은 어차피 만나게 될 도전이거나 또는 단지 일시적인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④ EJ : 결정지향적 외향형

ESTJ	ESFJ	ENFJ	ENTJ

4가지 모든 외향 판단(EJ) 유형은 외향 판단기능(T 또는 F)을 주기능으로, 그리고 내향 인식기능(S 또는 N)을 부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EJ는 빠르게 움직이고 결정을 지향하며 확신에 찬 외모이다. 이들이 결정이나 결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EJ는 천성적인 리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들은 그 역할을 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역할은 자신의 주기능인 판단기능이 결론에 이르도록 해주고, 관련된 일들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 김정택·심혜숙. (2013). MBTI®Form M 매뉴얼. Seoul: Assesta.; 김정택·심혜숙·제석

봉. (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3. 위험선호(Risk Preference), 위험태도(Risk Attitude)

Holt and Laury(2002)[5]는 그들의 논문에서 간단한 복권 선택 실험이 몇 달러부터 몇 백 달러에 걸친 범위에 따라 위험 회피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가상과 실제의 인센티브에 따른 행동을 비교했다. 매우 가상의 상황에서는 다소 불규칙했지만, 주요 보상효과(primary incentive effect)는 어느 정도 있었다(이는 많은 수의 안전한 복권 선택으로 측정된 결과이다). 4달러 이하의 상금을 주는 낮은 보상의 수준에서도 3분의 2의 피실험자들이 위험 회피를 보였다. 실제 상황에서는 스케일이 커질수록 위험 회피가 아주 높게 증가하였다. 반면, 가상의 상황에선 스케일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았다. Holt and Laury(2002) 위험 회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위험 중립의 간단한 가정하에서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위험함을 보여주었다.

Harrison et al.(2005)에서 피실험자들이 처음에 다른 보상 크기에 상황에서 같은 의사결정 문제를 완료하면 개인마다 위험 회피의 정도에 대한 추정치가 편향될 수 있음에 대응하여, order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 같은 지불 조건에서 복권 선택을 하는 새로운 실험을 수행했다. Holt and Laury(2005)는 새로운 데이터와 Harrison et al.(2005)에서의 데이터 모두에서 실제 지급액 증가가 상당 수준의 위험 회피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새로운 데이터는 가상의 지급액을 같은 금액 수준으로 증가시켜도 위험 회피의 명백한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득에 대한 위험 회피 경향으로부터 손실에 대한 위험 추구 경향으로의 변화의 개인차. 성격 변수가 위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Li and Liu(2008)은 구조화와 반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의 차이는 MBTI®의 관점에서 실험되었고, Jungian 성격유형 이론에서 파생된 정보처리 스타일에 대한 예측은 Asian Disease Problem[6]에서 많이 논의된 프레이밍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가 의존하는 반사 효과(reflection effect)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높은 Intuition/Extraversion 점수와 낮은 Judging 점수를 받은 business student들이 위험 추구를 보였다. 반면, Sensing/Judging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위험 회피를 보였다. Sensing/Judging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모두 프레이밍 효과와 반사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두번째로 예상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gray hair/clouds[7]효과가 관찰되었다.

Metzger and Fehr(2018)는 금융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위험 태도에 대한 설문지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논문에서 개발한 위험 태도 지표는 6개의 이해하기 쉬운 항목만 사용하며, 신뢰 가능하고, 투자자의 행동에서 분산의 상당 부분이 설명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김우섭·민재형(2018)의 연구는 계층화 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새로운 개인 투자자의 위험성향 측정법을 제안하였다. Gardner and Steinberg(2005)는 청소년, 청년, 성인 3가지 그룹의 306명의 설문 분석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위험

---

5) [표 A5]에 Holt and Laury(2002)가 활용한 위험선호도 및 위험회피수준에 대한 표를 삽입하였음.
6) 행동경제학에서 유명한 실험으로서, 긍정적인 표현(산다)을 사용할 시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는 위험 회피를 보였고, 부정적인 표현(죽는다)을 사용할 시 불확실한 손실을 선호하는 위험 추구를 보였다는 내용의 실험.
7) by Medin and Shoben's research in 1988 about the validity of risk propensity.

한 의사결정을 덜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동료와 함께 설문에 응답한 사람일수록 위험과 위험보상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 위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집단의 영향은 성인보다 청소년, 청년 그룹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se and Weber(1997)의 연구에선 사람들이 타인의 위험 선호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다. 세가지 실험은 참가자들이 위험한 선택 상황에서 해당 선택이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선택지들을 포함하는지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보다 남들이 더 위험 성향이 있다고 예측한다는 체계적인 편견을 보여줬다. 이러한 불일치는 오직 예측의 목표가 추상적일 때에만 발생했고, 목표가 뚜렷할 때에는 사라졌다. Hanna and, Lindamood(2013)는 income gambles에 기반하고,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과 연관된 발전된 형태의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금융 위험 혐오를 연구했다. 152명의 학생을 조사한 결과 새로운 측정법에 기반한 위험 혐오 예측 사이의 확실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Payne, Laughhunn, and Crum(1980)의 연구에선 세 가지 실험을 통해 gamble과 기준사이의 관계가 일정량의 액수를 더하고 빼는 것에 따라 다양해짐을 발견했다. 이는 결과의 변형이 한 쌍의 gamble에서 선택의 변화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4. 위험감내도(Risk Tolerence)

Grable(1997)의 연구는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직업, 자영업 여부, 소득, 인종, 교육 변수들이 개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혹은 투자자의 위험 감내 수준을 구별하고 개인들을 범주로 분류하게 묶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Leimberg, Satinsky, LeClair, and Doyle(1993)에서의 재무적 관리모델(financial management model)이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사용되었으며, 교육수준과 성별이 위험 감내 수준으로 분류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요소임을 알아냈고, 특히 교육수준이 가장 두드러지는 최적화 요소임을 알아냈다. Sung and Hanna(1996)는 1992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에서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가정에 대해 재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위험 감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남성이 가장이거나 결혼한 부부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가장인 여성이 위험을 감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Grable and Lytton(1999)는 금융 위험 감내도의 평가 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개념적, 방법론적,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금융에서의 위험 감내는 가정의 재무관련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교육자가 이용할 만한 좋은 평가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Wong and Carducci(2016)은 위험 감내도는 감각 추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성별, 연령, 평점 및 대학 성적에 의해 완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Zerokiewicz(2001)는 위험 감수를 분류하는 심리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이 접근 방식에 따르면 Instrumental Risk Taking(IRT)는 비용 편익 분석, 투자 결정, 미래 지향성 및 합리적인 사고와 관련이 잇고 Stimulating Risk Taking(SRT)는 윤리, 건강, 도박 및 개인적인 오락과 관련이 있다. IRT는 장기적인 위험 결정과 통제 가능한인지 과정인 반면 SRT는 단기간의 위험 감수 결정과 충동적인 감정적 과정이다. 위험 선호도 분석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간의 다양한 성격 특성을 반영하고 전통적 경제 접근법과는 다른 새로운 다차원적 접근 방식이다. Pratt(2013)은 돈의 효용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위주로 하여 소규모에서의 위험 회피 측정, arbitrary(임의의)한 위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혹은 insurance premium(보험료), 그리고 위험 회피 감소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관련시켰다.

Wang and Hanna(2007)의 연구에선 1992-2004 Survey of Consumer Finances 데이터를 이용해 세가지 타입의 가정의 위험 감내수준과 stock ownership를 측정했다. 경영은 하지 않고 사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을 감수하고, 가장 주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영과 소유를 모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위험을 감수하고자 했지만,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향은 덜 했다.

본 연구에서는 Zerokiewicz(2001)의 설문 문항을 이용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부여하고자 Weber et al.(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Weber et al.(2002)는 다섯 가지 도메인(금융 결정, 건강/안전, 오락, 윤리, 사회적 결정)에서의 위험 감수를 측정하는 심리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여성들은 사회적 위험을 제외한 모든 도메인에 걸쳐 더 위험 회피적 성향이 있었다. 기대 이익과 인지된 위험에 대한 위험 감수의 회귀분석 결과, 성별에 나타난 차이와 분명한 위험 감수에서의 도메인별 차이는 인지된 위험에 대한 태도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활동의 이익과 위험에 대한 인지에서의 차이와 연관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의 연구에 대한 기여도는 첫째, 명백한 위험 감수에 대한 개인 차, 성별 차, 도메인 내용 차이가 인지된 위험에 대한 태도의 차이보단 기본적으로 위험 활동의 이익과 위험에 대한 인지에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자들과 현직자로 하여금 6개의 일반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도메인 내용에서 관습적인 위험 성향과 인지된 위험 성향을 모두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위험 성향 등급을 제공한다. 셋째, 인지된 위험 성향이 관습적인 위험 성향보다 확연하게 도메인에 걸쳐 일정하다는 가설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Dohmen, T. et al.(2011)연구는 성별, 나이, 신장, 부모의 가정환경이 위험 감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Kannadhasan et al.(2016)은 금융에서의 위험 감내(Financial risk tolerance: FRT)는 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기대한 바와 반대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고 FRT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것은 자산 축적, 포트폴리오 분배, 투자 등 모든 금융과 관련된 개인의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자 자문가는 투자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FRT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실패하게 되면 투자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되고, 곧 이는 투자자와 자문자간 부정적인 관계형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

제3절 연구모형

1. MBTI® 주기능과 VVIP의 위험 선호도 비교

가. MBTI® 주기능에 따른 그룹핑

본 연구에서는 MBTI® 16가지 유형의 주기능에 따라 그룹핑을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기능 Se, Si, Te, Ti를 쓰는 유형을 주기능 ST그룹으로 분류하고 주기능 Ne, Ni, Fe, Fi를 쓰는 유형을 주기능 NF그룹으로 분류하였다. MBTI® 16가지 유형에서 주기능, 부기능, 3차기능, 열등기능을 나눈 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8].

나. T-test를 통한 평균비교

8) ㈜한국MBTI연구소에서 실시하는 MBTI® 전문자격교육의 초급과정, 중급과정, 보수과정, 일반강사과정 교과서 및 강의 내용을 인용함.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과 Private Banker를 이용하는 VVIP의 위험선호도 차이를 비교하고자 T-test를 실시하였다. T-test는 두 그룹 간의 평균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이다.

다. 회귀분석을 통한 비교 모형

본 연구에서는 Holt and Laury(2002)의 Lottery 설문조사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출한 VVIP와 학생들의 Lottery 점수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아래 식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회귀분석 모형이며, $Holt\,Lottery$는 Holt and Laury(2002)의 Lottery점수를 의미하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다. $MBTI_{NF}$는 전술한 MBTI® 의 주기능 추출을 통해 얻은 그룹의 더미변수를 의미하며, 만약 NF그룹에 속할 경우 1 아닐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VVIP$변수는 만약, VVIP에 속할 경우 1 아닐 경우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Gender$변수의 경우 여성일 경우 1 아닐 경우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Holt\,Lottery = \alpha + \beta_1 MBTI_{NF} + \beta_2 VVIP + \beta_3 Gender + \epsilon$$

위의 식을 통해 얻은 β_1의 값이 유의하고 양의 값을 가질 경우 NF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Holt\,Lottery$의 값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β_2의 값이 유의하며 음의 값을 가질 경우 VVIP의 $Holt\,Lottery$값이 다른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을 의미하며 위험추구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β_3의 값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어떠한 위험성향을 가지는지를 의미한다.

라. 토빗 모형

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의 스케일이 음수에서부터 양수까지 연속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설문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0 점부터 10점 또는 5점 등 점수의 범위가 한정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일정한 영역에서만 관측되어지는 값에 대해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의 형태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때, 중도절단회귀모형을 Tobit Regression이라 표현하며, 이는 Tobin(1958)의 연구를 통해 Probit모형의 형태로 개발되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으로만 모형을 활용하지 않고 $Holt\,Lottery$가 $0 \leq y \leq 10$의 제한된 값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여 Tobit Regression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추후 활용하게 될 제한된 값이 있는 경우 Tobit Regression을 이용하여 보다 Robust하게 검증하도록 한다.

2. Weber et al.(2002)의 위험 감수를 측정하는 심리 측정 방법을 이용한 분석

Weber et al.(2002)에서는 심리측정등급 설문지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의 심리를 6가지의 요인으로 측정 및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자자들의 6가지 특성에 따라 위험성향이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판단하며, $Holt\,Lottery$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Weber et al.(2002)에서 구분한 6가지 특성을 설문지로 조사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할 경우 6가지의 수치가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할 경우 아래의 모형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Holt\,Lottery = \alpha + \beta_i\,WB_i + \delta Control + \epsilon$$

위의 모형에서 β_i는 각 Weber et al.(2002)의 심리측정등급 설문지를 통해 구분한 6가지 특성을 이용하여 산출한 Factor(WB_i)의 값에 대한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해당 β_i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기록할 경우 계수에 해당하는 요인이 위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Control$변수는 위험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종교, 세대, 직업, 학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회귀모형의 경우 각 요소에 따른 위험성향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VVIP의 심리측정요소에 따른 위험성향을 분석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이용하여 VVIP의 심리측정등급 요인에 따른 위험성향을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식은 Weber et al.(2002)의 심리측정등급 요인(WB_i)과 VVIP간의 모형을 의미한다. 이때 아래의 γ_i는 각 심리측정등급 요인(WB_i)과 VVIP간의 상호작용의 계수를 의미한다. 해당 계수 γ_i이 유의할 경우 VVIP가 가지고 있는 심리측정등급 요인(WB_i)에 따라 위험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olt\,Lottery = \alpha + \beta_i\,WB_i + \gamma_i WB_i \times VVIP + \delta VVIP + \lambda Controls + \epsilon$$

3. MBTI®의 선호지표별 점수를 이용한 분석

MBTI®에서는 각 선호지표별 점수를 측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BTI®의 주기능을 구성하는 각 선호지표별 점수를 이용하여 투자자와 학생들의 위험성향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MBTI®의 선호지표를 구성하는 S, N, T, F의 점수를 독립변수로 $Holt\ Lottery$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도 하였다. 아래의 모형은 MBTI의 주요 선호지표 요인인 S, N, T, F 선호지표 점수를 나타내는 $Element_i$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형이다. 만약, 해당 요인 중 투자자 및 학생들의 위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할 경우 해당 변수의 회귀계수인 β_i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다음으로 VVIP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VVIP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VVIP$ 를 활용하였으며, 위험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인 성별, 세대, 직업, 학력을 $Controls$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Holt\,Lottery = \alpha + \beta_i Element_i + \gamma VVIP + \lambda Controls + \epsilon$$

4. MBTI®의 4가지 태도 유형[9]과 Private Banker의 투자조언 수용에 대한 분석

MBTI®에서는 각 태도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각 태도유형에 따라 Private Banker의 투자조언을 수용하고자 하는 용의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태도유형을 MBIT®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그룹화하여 4가지 태도유형($Attitude$)으로 구분한다. 각 유형은 IJ, IP, EP, EJ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의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한다. 해당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한다면 해당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9) 본문 제2절 선행연구, 2.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 성격유형검사), 가. 유형도표를 참고할 것.

Private Banker의 투자조언 수용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모형은 본 연구에서 구성한 Private Banker의 투자조언 수용에 대한 회귀모형이다.

$$PB\,Asset = \alpha + \beta_i Attitude_i + \lambda Controls + \epsilon$$

5. MBTI®의 심리기능 유형[10]과 Private Banker의 투자조언 수용에 대한 분석

MBTI®에서는 각 심리기능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각 심리기능 유형에 따라 Private Banker의 투자조언을 수용하고자 하는 용의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BTI®의 유형도표를 세로로 나눈 심리기능 유형별 그룹을 구성하였고 4가지 심리기능 유형($Psychology$)으로 구분한다. 각 유형은 ST, SF, NF, NT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의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한다. 해당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한다면 해당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Private Banker의 투자조언 수용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모형은 본 연구에서 구성한 Private Banker의 투자조언 수용에 대한 회귀모형이다.

$$PB\,Asset = \alpha + \beta_i Psychology_i + \lambda Controls + \epsilon$$

제4절 분석결과[11]

1. 기초통계량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VVIP자료는 ㅇㅇ은행에서 제공받았고 학생자료는 ㅇㅇ대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수집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한다. 기초통계량은 [표 1]에 작성하였다.

VVIP의 Holt and Laury Lottery Score는 평균 3.979점이며, 최대값이 7점 표준편차가 2.053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생들의 경우 평균 6.335점이며 표준편차가 2.240점으로 확인되어 VVIP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 샘플 중 여성의 비율은 86.5%로 나타났으며, Panel B.의 VVIP의 경우 여성비율이 61.8%, 학생들의 경우 97.3%로 나타났다. 총 샘플의 평균 연령은 30.8세로 나타났으며, 최고연령자는 78세 최저연령자는 17세로 밝혀졌다. 이중 VVIP의 경우 평균 연령이 54세로 나타났으며, 최저 25세 최대 78세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생 샘플의 경우 평균 20.6세 최저 17세 최대 51세로 나타났다. 최대 51세로 나타난 케이스의 경우 만학도인 경우이다. VVIP의 평균금융자산의 경우 36억원으로 밝혀졌으며, 최저 20억원 최대 70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Private Banker에게 일임하는 자산의 경우 최소 9억원 평균 24억원 최대 70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기초통계량

본 자료는 연구의 기초통계량을 전체 샘플과 VVIP 그리고 학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Holt_rottery는 Holt and Laury(2002) Lottery점수를 기록하였고, fac1-fac6은 Weber et al.(2002)의 심

10) 본문 제2절 선행연구, 2.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 성격유형검사), 가. 유형도표를 참고할 것.

11) 본문 제4절 분석결과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TATA Ver. 14.2를 사용하였다.

리측정등급 설문지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한 값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s,t,n,f는 MBTI®상의 각 선호지표의 점수를 의미하며, sex_dummy는 여성일 경우 1 아니면 0으로 처리한 더미변수이며. Age는 나이, fin_asset은 전체 금융자산, pb_ser_asset은 pb를 활용중인 자산을 원단위로 표기한 자료이며, asset_period는 pb 서비스의 이용기간을 의미한다.

	최소값	중위수	평균	최대값	표준편차	N
Panel A. 전체 샘플						
holt_lottery	0.000	6.000	5.621	10.000	2.437	475
fac1_e	-2.003	-0.308	-0.012	5.243	0.982	474
fac2_i	-2.293	0.015	-0.001	2.754	1.001	474
fac3_g	-1.587	-0.212	-0.006	8.954	0.996	474
fac4_r	-2.501	-0.210	0.001	3.835	0.997	474
fac5_h	-2.241	-0.132	-0.001	4.183	1.002	474
fac6_s	-2.985	0.070	0.000	3.326	0.996	474
s	1.000	20.000	19.116	34.000	7.583	475
t	1.000	14.000	14.709	33.000	7.304	475
n	0.000	9.000	10.065	34.000	5.038	475
f	0.000	10.000	9.947	48.000	5.569	475
sex_dummy	0.000	1.000	0.865	1.000	0.342	475
age	17.000	20.000	30.815	78.000	17.008	475
fin_asset	0	20	36.39	700	76.31	143
pb_ser_asset	0.000	9	24.06	700	65.1	142
asset_period	1.000	3.000	2.707	6.000	1.249	140
MBTI®Attitude IJ	0.000	0.000	0.284	1.000	0.452	475
MBTI®Attitude IP	0.000	0.000	0.194	1.000	0.396	475
MBTI®Attitude EP	0.000	0.000	0.236	1.000	0.425	475
MBTI®Attitude EJ	0.000	0.000	0.286	1.000	0.453	475
Panel B. VVIP 샘플						
holt_lottery	1.000	4.000	3.979	7.000	2.053	144
fac1_e	-1.725	-0.209	0.123	5.243	1.115	144
fac2_i	-1.293	0.522	0.482	2.754	0.839	144
fac3_g	-1.587	-0.209	0.097	4.651	1.114	144
fac4_r	-1.709	-0.187	0.021	3.647	0.910	144
fac5_h	-2.241	-0.564	-0.352	2.554	0.840	144
fac6_s	-2.985	-0.353	-0.411	1.759	0.933	144
s	4.000	23.000	22.861	34.000	6.461	144
t	2.000	16.000	16.569	31.000	6.743	144
n	0.000	8.000	8.083	19.000	3.948	144
f	0.000	7.000	7.278	20.000	4.709	144
sex_dummy	0.000	1.000	0.618	1.000	0.488	144
age	25.000	54.500	54.361	78.000	10.328	144
pb_ser_asset	0.000	9.000e+08	2.406e+09	7.000e+10	6.510e+09	142
fin_asset	0.000	2.000e+09	3.639e+09	7.000e+10	7.631e+09	143
asset_period	1.000	3.000	2.707	6.000	1.249	140
MBTI®Attitude IJ	0.000	0.000	0.417	1.000	0.495	144
MBTI®Attitude IP	0.000	0.000	0.069	1.000	0.255	144
MBTI®Attitude EP	0.000	0.000	0.139	1.000	0.347	144
MBTI®Attitude EJ	0.000	0.000	0.375	1.000	0.486	144
Panel C. 학생 샘플						
holt_lottery	0.000	6.000	6.335	10.000	2.240	331
fac1_e	-2.003	-0.345	-0.071	4.215	0.913	330
fac2_i	-2.293	-0.256	-0.212	2.409	0.993	330
fac3_g	-1.547	-0.215	-0.051	8.954	0.938	330
fac4_r	-2.501	-0.232	-0.007	3.835	1.035	330

fac5_h	-1.945	0.052	0.152	4.183	1.029	330
fac6_s	-2.886	0.273	0.180	3.326	0.970	330
s	1.000	18.000	17.486	33.000	7.464	331
t	1.000	12.000	13.900	33.000	7.400	331
n	0.000	10.000	10.927	34.000	5.220	331
f	0.000	11.000	11.109	48.000	5.521	331
sex_dummy	0.000	1.000	0.973	1.000	0.163	331
age	17.000	19.000	20.571	51.000	4.700	331
MBTI®Attitude IJ	0.000	0.000	0.227	1.000	0.419	331
MBTI®Attitude IP	0.000	0.000	0.248	1.000	0.432	331
MBTI®Attitude EP	0.000	0.000	0.278	1.000	0.449	331
MBTI®Attitude EJ	0.000	0.000	0.248	1.000	0.432	331

Panel D. MBTI 평균 비교

	ALL	SAMPLE	DIFF.
ISTJ	15.71%	18.03%	-2.32%
ISFJ	5.82%	6.08%	-0.26%
INFJ	1.64%	1.68%	-0.04%
NTJ	2.81%	2.73%	0.08%
ISTP	9.46%	6.71%	2.75%
ISFP	8.36%	7.55%	0.81%
INFP	4.76%	2.73%	2.03%
INTP	3.54%	2.31%	1.23%
ESTP	9.30%	5.87%	3.43%
ESFP	9.21%	6.50%	2.71%
ENFP	6.17%	6.29%	-0.12%
ENTP	3.55%	4.82%	-1.27%
ESTJ	11.28%	16.98%	-5.70%
ESFJ	4.84%	7.76%	-2.92%
ENFJ	1.52%	1.68%	-0.16%
ENTJ	2.03%	2.31%	-0.28%

2. Holt and Laury Lottery를 이용한 위험선호 비교분석

앞서 기초통계량을 통해 VVIP와 학생집단의 평균적인 Holt Lottery상 위험선호수준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별 그리고 MBTI®의 주기능별 Lottery Score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집단별 t-test를 통해 VVIP집단과 학생집단의 평균차이를 비교하고, MBTI®의 주기능으로 구분된 그룹별로 평균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아래 [표 2]에서는 전술한 VVIP와 학생의 평균차이를 표기하고 있으며, Panel B를 참고할 때 학생대비 VVIP의 Lottery 점수가 평균 2.356점이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VVIP가 학생보다 위험추구적인 성향이 존재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Panel C를 참고할 때 주기능의 경우 ST가 NF보다 평균적으로 0.8429893점 낮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ST그룹의 경우 NF그룹보다 위험추구적 성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주기능에 따라 VVIP와 학생들의 차이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아래 [표 2]의 Panel A.에 각 주기능에 따른 학생과 VVIP의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기능 ST에서 평균차이(C-D)는 VVIP가 학생보다 2.45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NF에서도 1.753점 낮은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0% 유의수준 하에서 VVIP 중 ST와 NF의 차이는 ST그룹이 NF그룹에 비해 0.8485점 정도 작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Holt Laury Lottery 평균비교

본 자료는 Holt and Laury(2002) Lottery점수를 MBTI® 16개 유형을 주기능으로 구분한 두 집단 ST 그룹, NF그룹을 기준으로 VVIP와 학생들의 평균차이를 계산한 자료이다 평균차이를 계산할 때, 아래의 괄호 안에는 t value를 표기하였으며, 이때의 분석은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분석이다.

Panel A. 평균비교

	VVIP(C)	STUDENT(D)	평균차이(C-D)
ST(A)	3.818182	6.271277	-2.453095*** (9.9519)
NF(B)	4.666667	6.41958	-1.752914*** (3.7460)
평균차이(A-B)	-0.8484848* (1.8184)	-0.1483038 (-0.5956)	

Panel B. VVIP VS. STUDENT

	VVIP(A)	STUDENT(B)	평균차이(A-B)
평균차이	3.979167*** (23.2544)	6.335347*** (51.4565)	-2.356181*** (-11.1771)
No. obs	144	331	475

Panel C. ST VS. NF

	ST(A)	NF(B)	평균차이(A-B)
평균차이	5.324675*** (38.0105)	6.167665*** (34.5524)	-0.8429893*** (-3.7151)
No. obs	308	167	475

아래 [표 3]에서는 앞서 분석한 Holt and Laury(2002)의 Lottery Score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각 주기능과 VVIP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MBTI®의 주기능이 NF일 경우 1 아닐 경우 0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모형과 (4)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NF가 ST보다 위험비 추구(Risk Reverse) 성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VIP변수의 경우 (2), (3), (4), (6), (7), (8)모형 모두 음의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VVIP가 대조군인 학생들에 비해 위험추구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Gender변수의 경우 여성일 경우 1 아닐 경우 0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존 Barber and Odean(200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VVIP가 빠진 모형(5)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존재하고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일반적인 여성의 위험회피 성향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것(Huang and Kisgen, 2013; Faccio, Marchica, and Mura, 201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144명중 89명(61.8%)이 여성인 VVIP그룹이 포함된 모형(6), (7), (8)을 통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위험추구 성향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여성이 아닌 VVIP인 여성은 위험추구 성향이 일반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Panel B.를 참고할 때, $Holt\,Lottery$의 제한된 값($0 \leq y \leq 10$)

을 반영한 Tobit 분석의 결과를 리포트 하였다. Tobit Regression 결과 앞서 설명한 Panel A의 결과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Holt Laury Lottery Regression

본 자료는 Holt and Laury(2002) Lottery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MBTI® 주기능과 VVIP dummy 그리고 Gender(성별)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자료이다. MBTI® 주기능의 경우 NF는 1 아니면 0으로 구분한 dummy variable이며, VVIP변수는 VVIP일 경우 1 아니면 0으로 구분하였다. Gender Dummy의 경우 여성일 경우 1 아니면 0으로 설정하였다. 아래의 괄호 안에는 t value를 표기하였으며 Huber-White Standard Error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은 1%에서 유의한 것을 의미하고, **은 5%, *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Panel A.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holt_lottery							
	(1)	(2)	(3)	(4)	(5)	(6)	(7)	(8)
MBTI® 주기능(NF)	0.843***		0.282	0.148	0.768***		0.310	0.159
	(3.72)		(1.28)	(0.59)	(3.31)		(1.42)	(0.64)
VVIP		-2.356***	-2.281***	-2.430***		-2.673***	-2.598***	-2.776***
		(-11.18)	(-10.45)	(-9.85)		(-11.76)	(-11.18)	(-10.75)
Gender					0.653**	-0.892***	-0.914***	-0.942***
					(2.13)	(-2.92)	(-3.04)	(-3.16)
MBTI®주기능(NF) × VVIP				0.677				0.768
				(1.29)				(1.54)
Constant	5.325***	6.335***	6.214***	6.271***	4.786***	7.203***	7.091***	7.183***
	(37.99)	(51.43)	(39.98)	(38.39)	(17.32)	(22.66)	(21.89)	(22.08)
No. obs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adj. R-sq	0.025	0.196	0.197	0.198	0.031	0.207	0.208	0.210

Panel B. Tobit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holt_lottery							
	(1)	(2)	(3)	(4)	(5)	(6)	(7)	(8)
MBTI® 주기능(NF)	0.897***		0.302	0.171	0.815***		0.332	0.183
	(3.58)		(1.25)	(0.61)	(3.17)		(1.39)	(0.66)
VVIP		-2.465***	-2.385***	-2.528***		-2.792***	-2.713***	-2.886***
		(-11.21)	(-10.48)	(-9.80)		(-11.69)	(-11.17)	(-10.68)
Gender					0.696**	-0.924***	-0.949***	-0.976***
					(2.16)	(-2.89)	(-3.01)	(-3.12)
MBTI® 주기능(NF) × VVIP				0.654				0.747
				(1.22)				(1.46)
Constant	5.386***	6.444***	6.314***	6.370***	4.812***	7.342***	7.223***	7.313***
	(35.97)	(46.56)	(36.94)	(35.29)	(16.90)	(21.68)	(21.12)	(21.24)
Sigma	2.594***	2.355***	2.350***	2.347***	2.583***	2.337***	2.332***	2.327***
	(27.37)	(27.90)	(27.74)	(27.70)	(27.52)	(27.71)	(27.51)	(27.50)
No. obs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Pseudo. R-sq	0.006	0.045	0.046	0.046	0.008	0.048	0.049	0.050

3. Weber et al.(2002)의 심리측정 방법을 이용한 위험선호 분석

VVIP와 주기능에 따라 위험회피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앞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eber et al.(2002)는 위험 감수를 측정하는 심리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들이 제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확보한 요인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각 6가지 요인별 위험회피성향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앞서 주기능 분석과 같이 투자자와 학생들의 생활 속 심리측정등급과 관련된 성격적 요인이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준다면 Weber et al.(2002)가 제안한 심리측정방법의 요인분석자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표 4]에서 Weber et al.(2002)가 5가지(financial, recreational, health, social, ethic)로 구분한 자료를 해당 연구에서 6가지로 구분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12]. 이에 본 연구는 6가지 심리측정 요인을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각 요인별 요인스코어 추출하였다. 추가적으로 VVIP와의 관련성에 대해 교호작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4]의 (1)과 (2)은 모든 샘플에 대한 6가지 심리측정요인 그리고 성별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한 분석결과를 리포트 하였다. (1)과 (2)에서는 Investment를 의미하는 Factor I가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샘플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다 위험회피적임을 나타내지만, 이는 VVIP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기에 본 연구에서는 샘플을 구분하여 VVIP만 따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3), (4)에 작성하였다. (3)과 (4)에서는 Gamble을 의미하는 Factor g와 Recreational을 의미하는 Factor r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VVIP중 Gamble성향 또는 Recreational성향이 있을수록 위험 추구적인 성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Gamble성향의 경우 위험추구적인 행동이 존재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으나, Recreational성향은 고려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설문한 Recreational성향은 위험한 레저를 즐기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존재하였고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추구성향이 투자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 중 Bernile et al.(2017)의 연구결과와 같이 개인의 특성이 위험추구 투자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4] Holt Laury Lottery and Weber Regression

본 자료는 Holt and Laury(2002) Lottery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Weber et al(2002)의 위험 감수를 측정하는 심리 측정 설문지를 바탕으로 요인분석한 자료를 fac1-fac6까지 분류하여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1), (2)과 (5)은 모든 자료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을 의미하며, (3)과 (4)은 VVIP 샘플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자료를 의미한다. VVIP변수는 VVIP일 경우 1 아니면 0으로 구분하였다. Controls의 하부에 있는 변수들은 회귀분석 시

12) 해당 연구에서는 Financial Factor를 Investment와 Gamble로 구분하였음

Control 변수로 사용한 자료들을 의미하며, Gender의 경우 여성일 경우 1 아니면 0, Job은 각 직업별 더미변수를 Religion은 종교유무에 따른 더미변수, Scholar는 최종 학력별 더미변수 그리고 Generation은 세대별(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더미를 의미한다. 아래의 괄호 안에는 t value를 표기하였으며 Huber-White Standard Error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은 1%에서 유의한 것을 의미하고, **은 5%, *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Panel A.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holt_lottery				
	(1) ALL	(2) ALL	(3) VVIP	(4) VVIP	(5) ALL
fac1_e	-0.121	-0.096	-0.062	-0.022	-0.128
	(-1.18)	(-0.93)	(-0.38)	(-0.13)	(-0.85)
fac2_i	-0.417***	-0.391***	0.426**	0.319	-0.180
	(-3.91)	(-3.49)	(2.01)	(1.37)	(-1.39)
fac3_g	-0.077	-0.058	0.425***	0.352**	-0.321*
	(-0.78)	(-0.58)	(3.24)	(2.36)	(-1.71)
fac4_r	0.061	0.078	0.518***	0.702***	-0.182
	(0.56)	(0.70)	(3.23)	(3.81)	(-1.36)
fac5_h	0.113	0.104	-0.212	-0.275	-0.118
	(1.07)	(1.00)	(-0.99)	(-1.13)	(-0.98)
fac6_s	0.309***	0.287**	0.071	0.080	0.011
	(2.79)	(2.57)	(0.38)	(0.42)	(0.08)
VVIP×fac4_e					0.107
					(0.48)
VVIP×fac4_i					0.499*
					(1.93)
VVIP×fac4_g					0.673***
					(2.85)
VVIP×fac4_r					0.884***
					(3.99)
VVIP×fac4_h					-0.158
					(-0.60)
VVIP×fac4_s					0.069
					(0.30)
VVIP					-2.512
					(-1.27)
Constant	5.615***	5.222***	3.666***	0.453	3.296**
	(51.13)	(17.35)	(14.52)	(0.24)	(2.16)
Controls					
Gender	NO	YES	YES	YES	YES
Job	NO	NO	NO	YES	YES
Religion	NO	NO	NO	YES	YES
Scholar	NO	NO	NO	YES	YES
Generation	NO	NO	NO	YES	YES

No. obs	475	475	145	145	475
adj. R-sq	0.039	0.041	0.125	0.170	0.234

Panel B. Tobit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holt_lottery				
	(1) ALL	(2) ALL	(3) VVIP	(4) VVIP	(5) ALL
fac1_e	-0.114	-0.087	-0.057	0.005	-0.145
	(-1.07)	(-0.80)	(-0.36)	(0.03)	(-0.93)
fac2_i	-0.440***	-0.411***	0.402*	0.333	-0.195
	(-3.89)	(-3.45)	(1.90)	(1.54)	(-1.45)
fac3_g	-0.092	-0.071	0.414***	0.366***	-0.349*
	(-0.90)	(-0.68)	(3.21)	(2.63)	(-1.84)
fac4_r	0.036	0.054	0.414**	0.659***	-0.200
	(0.31)	(0.46)	(2.55)	(3.88)	(-1.45)
fac5_h	0.090	0.081	-0.250	-0.271	-0.161
	(0.81)	(0.73)	(-1.15)	(-1.20)	(-1.27)
fac6_s	0.342***	0.319***	0.116	0.122	0.016
	(2.89)	(2.70)	(0.66)	(0.68)	(0.12)
VVIP×fac4_e					0.150
					(0.68)
VVIP×fac4_i					0.528**
					(2.08)
VVIP×fac4_g					0.715***
					(3.04)
VVIP×fac4_r					0.860***
					(3.93)
VVIP×fac4_h					-0.110
					(-0.43)
VVIP×fac4_s					0.105
					(0.47)
VVIP					-2.759
					(-1.38)
Constant	5.703***	5.276***	4.005***	0.421	3.709**
	(47.82)	(16.85)	(11.36)	(0.24)	(2.38)
Sigma	2.562***	2.557***	1.862***	1.726***	2.220***
	(27.56)	(27.72)	(23.19)	(22.98)	(26.80)
Controls					
Gender	NO	YES	YES	YES	YES
Job	NO	NO	NO	YES	YES
Religion	NO	NO	NO	YES	YES
Scholar	NO	NO	NO	YES	YES

Generation	NO	NO	NO	YES	YES
No. obs	474	474	144	144	474
Pseudo R-sq	0.011	0.012	0.044	0.080	0.069

4. MBTI®의 선호지표점수를 이용한 위험선호 분석

앞서 분석들에서 MBTI®에서 측정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성격 특성이 위험추구성향 및 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특히 어떠한 요소에서 기인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성격유형검사의 중 하나인 MBTI®의 기본 선호지표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기존의 분석과 동일하게 Holt and Laury Lottery Score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로 MBTI®에서 측정 가능한 S, T, N, F의 점수를 이용하였다.

해당 점수를 이용한 분석결과, [표 5]의 (1), (2), (3), (5), (6)의 모형에서 모두 T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Holt Lottery*의 제한된 값을 고려했을 때에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각 MBTI®의 점수에 대해 Jung에 따르면, 인식기능은 감각(sensing: S)과 직관(intuition: N)으로 구분되며 판단기능은 T(thinking: T)와 F(feeling: F)로 구분된다. 여기서 T유형의 경우 인정에 얽매이지 않으려 하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중시성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에 있어서는 냉정한 판단을 바탕으로 다른 선호지표 비해 위험 추구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특성이 투자성향에 반영될 수 있음을 검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5] Holt Laury Lottery and MBTI® Preference Index Score Regression

본 자료는 Holt and Laury(2002) Lottery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MBTI®의 인식기능인 S, N과 판단기능인 T, F를 독립변인으로 활용한 분석결과이다. 컨트롤 수준에 따라 칼럼을 구분하였으며, (1)은 컨트롤하지 않은 결과, (2), (3), (4)는 종교와 세대만 컨트롤한 결과이다. (5)는 Gender, Job, Religion, Scholar, Generation 모두 컨트롤한 결과를 리포트 하였다. 아래의 컨트롤변수들은 [표 2]의 컨트롤 변수를 이용한 자료이다. 아래의 괄호 안에는 t value를 표기하였으며 Huber-White Standard Error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은 1%에서 유의한 것을 의미하고, **은 5%, *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Panel A.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holt_lottery					
	(1)	(2)	(3)	(4)	(5)	(6)
MBTI® (S)	-0.003	-0.003	-0.011		-0.011	-0.007
	(-0.13)	(-0.14)	(-0.78)		(-0.42)	(-0.24)

MBTI® (T)	-0.060***	-0.060***	-0.033**		-0.053**	-0.053**
	(-2.93)	(-2.88)	(-2.30)		(-2.51)	(-2.16)
MBTI® (N)	0.012	0.012		0.009	0.000	-0.016
	(0.33)	(0.33)		(0.42)	(0.00)	(-0.34)
MBTI® (F)	-0.047*	-0.047*		0.016	-0.032	-0.033
	(-1.74)	(-1.72)		(0.77)	(-1.10)	(-1.00)
MBTI® (S)× VVIP						-0.006
						(-0.11)
MBTI® (T)× VVIP						-0.002
						(-0.03)
MBTI® (N)× VVIP						0.098
						(1.27)
MBTI® (F)× VVIP						0.008
						(0.11)
VVIP	-2.325***	-2.215***	-2.123***	-2.237***	-2.425***	-3.658**
	(-9.70)	(-3.60)	(-3.49)	(-3.59)	(-2.80)	(-2.06)
Constant	7.623***	7.548***	6.921***	5.996***	4.060**	4.417***
	(11.26)	(10.68)	(18.75)	(15.69)	(2.52)	(2.63)
Controls						
Gender	NO	NO	NO	NO	YES	YES
Job	NO	NO	NO	NO	YES	YES
Religion	NO	YES	YES	YES	YES	YES
Scholar	NO	NO	NO	NO	YES	YES
Generation	NO	YES	YES	YES	YES	YES
No. obs	475	475	475	475	475	475
adj. R-sq	0.205	0.197	0.197	0.187	0.205	0.206

Panel B. Tobit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holt_lottery					
	(1)	(2)	(3)	(4)	(5)	(6)
MBTI® (S)	-0.008	-0.008	-0.012		-0.016	-0.014
	(-0.30)	(-0.31)	(-0.80)		(-0.59)	(-0.42)
MBTI® (T)	-0.062***	-0.062***	-0.035**		-0.054**	-0.054**
	(-2.79)	(-2.73)	(-2.25)		(-2.40)	(-2.05)
MBTI® (N)	0.005	0.005		0.007	-0.007	-0.026
	(0.14)	(0.14)		(0.33)	(-0.18)	(-0.52)
MBTI® (F)	-0.048	-0.047		0.017	-0.031	-0.031
	(-1.63)	(-1.61)		(0.76)	(-1.01)	(-0.89)
MBTI® (S)× VVIP						0.000
						(0.00)
MBTI® (T)× VVIP						0.001
						(0.03)
MBTI® (N)× VVIP						0.107
						(1.38)
MBTI® (F)× VVIP						0.009
						(0.12)
VVIP	-2.423***	-2.430***	-2.348***	-2.467***	-2.482***	-3.965**
	(-9.69)	(-3.40)	(-3.29)	(-3.41)	(-2.85)	(-2.22)
Constant	7.912***	7.856***	7.096***	6.138***	4.149**	4.567**
	(10.96)	(10.42)	(17.61)	(14.78)	(2.40)	(2.55)
Sigma	2.332***	2.330***	2.336***	2.351***	2.291***	2.281***
	(27.94)	(27.74)	(27.79)	(27.74)	(27.31)	(27.13)
Controls						
Gender	NO	NO	NO	NO	YES	YES
Job	NO	NO	NO	NO	YES	YES
Religion	NO	YES	YES	YES	YES	YES
Scholar	NO	NO	NO	NO	YES	YES
Generation	NO	YES	YES	YES	YES	YES
No. obs	475	475	475	475	475	475
Pseudo R-sq	0.049	0.049	0.048	0.046	0.056	0.058

5. MBTI®의 4가지 태도 유형과 Private Banker의 투자조언 수용에 대한 분석

앞서 분석들에서 MBTI®에서 측정되어 분류된 개인들의 성격특성이 위험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현재 금융시스템에서 활동하고 있는 Private Banker의 조언를 통해 VVIP들의 총 보유자산 대비 투자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BTI®의 유형도표를 가로로 나눈 4가지 태도 유형별 그룹을 구성하였고 각 그룹들이 Private Banker Service를 통한 투자 조언의 이용수준이 태도유형 그룹 별로 상이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용 수준의 개념을 Private Banker 총 보유자산 대비 투자수준은 금액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개인적 투자금액과 성향에 따라 추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율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6]에는 본 연구에서 구분한 MBTI®의 4가지의 태도유형에 따른 더미변수를 설정한 분석자료를 작성하였고 분석결과 태도유형 EP의 경우 Private Banker의 조언을 투자에 이용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헌연구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EP의 성향이 적응력 있는 외향형이며, 이들은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또한 사회적인 성격을 보유한 유형으로 분류되어있다. 이러한 성격의 특징은 새로운 경험을 항상 추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열망과 능력에 대한 낙관주의 성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본인의 능력에 대해 낙관적으로 관망하는 성격으로 인해 Private Banker의 조언에 의존하지 않는 투자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Private Banker들이 고객 성격유형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자산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 실무적인 시사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Panel B. 에서는 각 성격유형별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Private Banker의 조언을 통한 VVIP의 총 보유자산 대비 투자수준에 대해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Panel A.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EP의 태도 유형이 유의한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Private Banker Service(ratio) and MBTI® 4 Attitudes Regression

본 표는 Private Banker Service의 이용 수준을 총 금융자산과 비율화($PB\,Asset/Fin\,Asset$)한 자료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표의 독립변수는 MBTI® 4가지 태도지표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컨트롤 변수의 경우 기존 [표 2]의 컨트롤 변수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아래의 괄호 안에는 t value를 표기하였으며 Huber-White Standard Error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은 1%에서 유의한 것을 의미하고, **은 5%, *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Panel A. MBTI® 4 Attitudes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Private Banker Service (ratio)				
	(1)	(2)	(3)	(4)	(5)
MBTI® Attitude IP	-0.091	-0.086	-0.099	-0.122	-0.135
	(-1.10)	(-1.00)	(-1.19)	(-1.46)	(-1.54)
MBTI® Attitude EP	-0.184**	-0.188**	-0.196***	-0.161**	-0.131*
	(-2.59)	(-2.60)	(-2.84)	(-2.46)	(-1.81)
MBTI® Attitude EJ	-0.067	-0.068	-0.085	-0.084	-0.076
	(-1.29)	(-1.33)	(-1.58)	(-1.56)	(-1.32)
Constant	0.651***	0.622***	0.671***	0.569***	0.558**
	(17.07)	(12.09)	(10.96)	(5.69)	(2.49)
Controls					
Gender	NO	YES	YES	YES	YES
Job	NO	NO	NO	NO	YES
Religion	NO	NO	YES	YES	YES
Scholar	NO	NO	NO	YES	YES
Generation	NO	NO	NO	NO	YES
No. obs	141	141	141	141	141
adj. R-sq	0.027	0.028	0.037	0.076	0.046

Panel B. MBTI® 4 Attitudes Tobit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Private Banker Service (ratio)				
	(1)	(2)	(3)	(4)	(5)
MBTI® Attitude IP	-0.102	-0.098	-0.110	-0.135	-0.150
	(-1.09)	(-1.01)	(-1.19)	(-1.50)	(-1.64)
MBTI® Attitude EP	-0.208***	-0.212***	-0.221***	-0.183***	-0.147**
	(-2.82)	(-2.84)	(-3.09)	(-2.73)	(-2.03)

MBTI® Attitude EJ	-0.079	-0.080	-0.098	-0.096	-0.085
	(-1.34)	(-1.37)	(-1.62)	(-1.61)	(-1.36)
Constant	0.676***	0.647***	0.698***	0.577***	0.585***
	(15.22)	(10.92)	(10.10)	(5.91)	(2.62)
Sigma	0.299***	0.297***	0.295***	0.284***	0.280***
	(16.07)	(15.96)	(16.12)	(15.93)	(15.73)
No. obs	141	141	141	141	141
Pseudo R-sq	0.072	0.081	0.103	0.195	0.240

Panel C. Sort by MBTI® 4 Attitudes Regression and Tobit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Private Banker Service (ratio)							
	Regression				Tobit Regression			
	(1)	(2)	(3)	(4)	(1)	(2)	(3)	(4)
MBTI® Attitude IJ	0.097**				0.112**			
	(2.04)				(2.07)			
MBTI® Attitude IP		-0.037				-0.039		
		(-0.48)				(-0.44)		
MBTI® Attitude EP			-0.147**				-0.165**	
			(-2.28)				(-2.52)	
MBTI® Attitude EJ				-0.016				-0.020
				(-0.35)				(-0.39)
Constant	0.555***	0.597***	0.614***	0.601***	0.564***	0.613***	0.632***	0.618***
	(19.41)	(24.45)	(24.78)	(19.55)	(18.21)	(22.22)	(22.24)	(17.68)

Sigma					0.301***	0.306***	0.301***	0.306***
					(16.14)	(16.46)	(16.34)	(16.49)
No. obs	141	141	141	141	141	141	141	141
R-sq	0.030	0.001	0.033	0.001				
Pseudo R-sq					0.046	0.001	0.049	0.001

6. MBTI®의 심리기능 유형과 Private Banker의 투자조언 수용에 대한 분석

이에 본 연구는 MBTI®의 유형도표를 세로로 나눈 심리기능 유형별 그룹을 구성하였고 각 그룹들이 Private Banker Service를 통한 투자 조언의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용수준의 개념을 Private Banker 총 보유자산 대비 투자수준은 금액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개인적 투자금액과 성향에 따라 추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율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7] 에는 본 연구에서 구분한 MBTI®의 4가지의 심리기능유형에 따른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각각의 심리기능유형에 따라 Private Banker의 총 보유자산 대비 투자수준과 유의한 심리기능유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태도유형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Private Banker의 총 보유자산 대비 투자수준과 유의하게 반응한 그룹이 E와 P에 분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7] Private Banker Service(ratio) and MBTI® 4 Psychological Function Regression

본 표는 Private Banker Service의 이용 수준을 총 금융자산과 비율화($PBAsset/FinAsset$)한 자료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표의 독립변수는 MBTI®의 4가지 심리기능 지표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괄호 안에는 t value를 표기하였으며 Huber-White Standard Error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은 1%에서 유의한 것을 의미하고, **은 5%, *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다.

	Dependent Variable: Private Banker Service (ratio)							
	Regression				Tobit Regression			
	(1)	(2)	(3)	(4)	(1)	(2)	(3)	(4)
MBTI®	-0.008				0.008			
Psy-Function ST	(-0.16)				(0.16)			

MBTI® Psy-Function SF		0.026				0.014		
		(0.49)				(0.25)		
MBTI® Psy-Function NF			-0.071				-0.088	
			(-0.52)				(-0.64)	
MBTI® Psy-Function NT				-0.007				-0.024
				(-0.09)				(-0.29)
Constant	0.600***	0.590***	0.596***	0.595***	0.604***	0.607***	0.613***	0.611***
	(15.38)	(22.32)	(25.26)	(24.55)	(14.98)	(20.08)	(22.83)	(22.19)
Sigma					0.306***	0.306***	0.306***	0.306***
					(16.46)	(16.44)	(16.58)	(16.49)
No. obs	141	141	141	141	141	141	141	141
R-sq	0.000	0.001	0.002	0.000				
Pseudo R-sq					0.000	0.000	0.003	0.000

제6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MBTI®에 의해 구분되는 인간의 성격유형이 금융투자자 각 개인의 위험선호 및 Private Banker의 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특성이 위험선호 및 Private Bank Service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고액자산가 그룹(VVIP)과 실험의 대조군인 학생 집단의 MBTI®의 선호지표점수와 성격유형 실시하였고 Holt and Laury (2002)의 Lottery Score와 Private Banker Service 사용의도 그리고 Weber et al. (2002)의 심리측정등급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험선호도를 측정하는 Holt and Laury(2002)의 Lottery연구에서 VVIP와 일반 대조군 그리고 주기능(ST, NF)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였다. 특히 VVIP의 경우 유의수준 10%내에서 ST와 NF 그룹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단변량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Regression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하였다. 둘째, Weber et al.(2002)의 위험 감수를 측정하는 심리측정 요인 중 Gamble을 나타내는 g와 Recreation을 나타내는 r의 특성이 VVIP에서 위험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특성 또는 금융과 관련이 없는 취미생활이 개인의 위험선호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의 문헌들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MBTI®의 선호지표점수에 따라 위험선호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MBTI® T점수가 높을 경우 위험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VVIP그룹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MBTI® 유형도표의 태도지표에 의해 구분된 유형들에 따라 전체 금융자산 대비 Private Banker를 이용하는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VVIP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태도유형 EP의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이용비율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낙관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성향이 전체금융자산 대비 Private Banker의 이용수준에도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네 가지 결과들은 일관되게 개인의 성격유형이 위험선호성향, Private Banker의 사용의도 및 사용에 따른 이용수준과 같은 투자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개인의 MBTI®에 의해 구분되는 성격유형 또는 투자자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및 연령) 등은 Private Banker 이용수준과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자, 재무학(Finance)연구에 있어 최초로 MBTI®를 기반으로 고액자산가(VVIP)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감성에 대한 다면적인 연구를 시도한 점에서 기여점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의 성격유형은 기존 연구들에서는 밝혀지기 어려운 일종의 Omitted Variable로 평가되었을 수 있으나 교육학,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측정도구를 통해 개인의 성격유형을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Hand-Collecting하여 유일한(Unique)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분석하였다는데 관련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의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표본수의 부족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MBTI®의 심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석을 위해 나뉘어진 일부 그룹의 표본수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VVIP에 대한 MBTI® 검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설문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나 고액자산가(VVIP)는 쉽게 접하기 어렵고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한 설문정보를 얻기는 더더욱 어렵다.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쉽지는 않으나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자료의 수집을 보강한다면 더욱 정교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우섭·민재형. (2018). 개인 투자자의 위험성향 측정과 활용. 한국경영과학회지, 43(1)

김정택·심혜숙. (2013). MBTI Form M 매뉴얼. Seoul: Assesta.

김정택·심혜숙·제석봉. (1995). MBTI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김혜영·강영선. (2014). 가격인상과 용량감소에 관한 소비자 관점의 비교 연구: 경쟁사 가격전략과 위험회피성향을 중심으로. 경영과학, 32(3), 55-70.

민경실·송인성. (2014). 국내 금융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 측정. 소비문화연구, 17, 69-88.

배은성·김범석·민재형. (2016). 의사결정스타일과 위험성향의 측정, 분포, 그리고 그 관계. 한국경영과학회지, 41(4), 33-53.

이정하. (2009). 과거 투자수익률 경험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변화에 대한 실증 연구.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홍. (2000). 한국 기업집단의 강제적 동질성 (isomorphism) 을 수반한 모집단학습: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의 비교 (Population Learning with Coercive Isomorphism in the Korean Business Groups: A Comparison between the Samsung & Hyundai Group). 경영과학, 17(1), 87-115.

차경욱·정다은. (2013). 개인투자자의 손실회피성향, 위험태도와 가계금융자산 보유 특성.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19-141.

한승조·고현민·구교찬. (2015). MBTI 성격유형에 따른 투자성향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4049-4054.

MBTI 데이터뱅크. (2004). 어세스타, 한국MBTI연구소.

Asendorpf, J. B., Borkenau, P., Ostendorf, F., & Van Aken, M. A. (2001). Carving personality description at its joints: Confirmation of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prototypes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3), 169-198.

Ashton, M. C., & Lee, K. (2009). An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types within the HEXACO personality framework,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0(4),

181-187.

Barber, B. M., & Odean, T. (2001). Boys will be boys: Gender, overconfidence, and common stock invest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1), 261-292.

Bernile, G., Bhagwat, V., & Rau, P. R. (2017). What doesn't kill you will only make you more risk loving: Early life disasters and CEO behavior, *The Journal of Finance,* 72(1), 167-206.

Caspi, A.,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qualities at age three predict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hood: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Child development,* 66(2), 486-498.

Cong, W., & Hanna, S. (2007). The risk tolerance and stock ownership of business owning households, SSRN Working Paper.

Dohmen, T., Falk, A., Huffman, D., Sunde, U., Schupp, J., & Wagner, G. G. (2011). Individual risk attitudes: Measurement, determinants, and behavioral consequence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9(3), 522-550.

Faccio, M., Marchica, M. T., & Mura, R. (2016). CEO gender, corporate risk-taking, and the efficiency of capital allocation,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39, 193-209.

Furnham, A. (1996). The big five versus the big fou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and NEO-PI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2), 303-307.

Gardner, M., & Steinberg, L. (2005). Peer influence on risk taking, risk preference, and risky decision making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an experiment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1(4), 625.

Gerlach, M., Farb, B., Revelle, W., & Amaral, L. A. N. (2018). A robust data-driven approach identifies four personality types across four large data sets, *Nature Human Behaviour*, 2(10), 735.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

Grable, J. E. (1997). Investor risk tolerance: Testing the efficacy of demographics

as differentiating and classifying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Tech.

Grable, J., & Lytton, R. H. (1999). Financial risk tolerance revisited: the development of a risk assessment instrument☆. Financial services review, 8(3), 163-181.

Hanna, S. D., Lindamood, S. (2013). An Improved Measure of Risk Aversion.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15, No. 2, 27-45.

Harrison, G. W., Johnson, E., McInnes, M. M., & Rutström, E. E. (2005). Risk aversion and incentive effects: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5(3), 897-901.

Holt, C. A., & Laury, S. K. (2002). Risk aversion and incentive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92(5), 1644-1655.

Holt, C. A., & Laury, S. K. (2005). Risk aversion and incentive effects: New data without order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95(3), 902-912.

Hsee, C. K., & Weber, E. U. (1997). A fundamental prediction error: Self - others discrepancies in risk prefer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26(1), 45.

Huang, J., & Kisgen, D. J. (2013). Gender and corporate finance: Are male executives overconfident relative to female execu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8(3), 822-839.

Kannadhasan, M., Aramvalarthan, S., Mitra, S. K., & Goyal, V. (2016). Relationship between Biopsychosocial Factors and Financial Risk Tolerance: An Empirical Study, *Vikalpa*, 41(2), 117-131.

Kim, J. T., & Shim, H. S. (2013). MBTI Form M Manual, Seoul: Assesta.

Leimberg, SR, Satinsky, MJ, LeClair, RT & Doyle, RJ Jr., editors. The tools and techniques of financial planning (4th ed., 213-226). Cincinnati, OH: National Underwriter.

Li, S., & Liu, C. J.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a switch from risk averse preferences for gains to risk seeking preferences for losses: can personality variables predict the risk preferences?, *Journal of Risk Research*, 11(5), 673-686.

McCrae, R. R., & Costa Jr, P. T. (1989). Reinterpreting the Myers Briggs type indicato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57(1), 17-40.

McCrae, R. R., Terracciano, A., Costa Jr, P. T., & Ozer, D. J. (2006). Person factors in the California Adult Q Set: Closing the door on personality trait typ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European Associ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y*, 20(1), 29-44.

MacDonald, D. A., Anderson, P. E., Tsagarakis, C. I., & Holland, C. J. (1994).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74(1), 339-344.

Metzger, B. A., & Fehr, R. R. (2018). Measuring Financial Risk Attitude: How to Apply Both Regulatory and Scientific Criteria to Ensure Suitability, *Journal of Behavioral Finance*, 19(2), 221-234.

Ozer, D. J., & Benet-Martinez, V. (2006). Personality and the prediction of consequential outcomes, *Annu. Rev. Psychol.*, 57, 401-421.

Pratt, J. W. (2013). Risk aversion in the small and in the large. In *HANDBOOK OF THE FUNDAMENTALS OF FINANCIAL DECISION MAKING: Part I* (pp. 317-331).

Payne, J. W., Laughhunn, D. J., & Crum, R. (1980). Translation of gambles and aspiration level effects in risky choice behavior, *Management Science*, 26(10), 1039-1060.

Specht, J., Luhmann, M., & Geiser, C. (2014). On the consistency of personality types across adulthood: Latent profile analyses in two large-scale pane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3), 540.

Sung, J., & Hanna, S. (1996). Factors related to risk tolerance,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

Tobin, J. (1958). Estimation of relationship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24-36.

Weber, E. U., Blais, A. R., & Betz, N. E. (2002). A domain specific risk attitude scale: Measuring risk perceptions and risk behavio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5(4), 263-290.

Wang, C., & Hanna, S. D. (2007). Racial/ethnic disparities in stock ownership: A decomposition analysis. Consumer Interests Annual, 53, 113-130.

Wong, A., & Carducci, B. (2016). Do sensation seeking, control orientation, ambiguity, and dishonesty traits affect financial risk tolerance?, *Managerial Finance,* 42(1), 34-41.

Yoon, C. H., & Lim, D. S. (2018). The Effect of the Big Five and the MBTI on Impulsive and Compulsive Buying Behaviors: An Integrated Analysis in Online Shopping.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4(3), 101-117.

Zaleskiewicz, T. (2001). Beyond risk seeking and risk aversion: Personality and the dual nature of economic risk tak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S1), S105-S122.

[인터넷 자료]

5가지 성격 특성요소. URL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5%EA%B0%80%EC%A7%80_%EC%84%B1%EA%B2%A9_%ED%8A%B9%EC%84%B1_%EC%9A%94%EC%86%8C

Q methodology. URL 주소:
https://en.wikipedia.org/wiki/Q_methodology

HEXACO. URL 주소:
https://en.wikipedia.org/wiki/HEXACO_model_of_personality_structure

부록

[표 A1] Weber et al.(2002)의 측정변수 Factor Analysis[13] 결과

본 자료는 제4절 3. Weber et al.(2002)의 위험 감수를 측정하는 심리 측정 방법을 이용한 분석에 사용된 측정변수들 요인분석 한 후 회전 성분 행렬값을 나타낸다.

KMO 및 Bartlett의 검정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29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2895.915
	df	300
	유의수준	**0.000**

회전 성분 행렬[a]						
	구성요소					
	1	2	3	4	5	6
B13_E	**.685**	.003	.206	-.057	.262	.154
B5_E	**.663**	.041	.325	.102	-.027	.001
B12_E	**.662**	.086	.150	-.102	.195	.144
B23_E	**.645**	-.027	.247	.106	.076	.015
B18_E	**.624**	.225	-.065	.150	.019	.121
B25_E	**.521**	.236	.085	.267	.125	-.075
B9_E	**.412**	.142	.062	.172	-.219	-.005
B22_I	.049	**.831**	-.042	-.014	.012	.147
B7_I	.161	**.743**	.203	.238	-.001	-.018
B16_I	.113	**.726**	.264	.129	.001	.093
B27_I	.120	**.725**	-.008	.045	.071	-.065
B3_G	.227	.068	**.735**	.181	-.049	-.061
B20_G	.235	.134	**.645**	.199	.037	-.051
B11_G	.078	.019	**.607**	-.063	.083	.102
B30_G	.251	.161	**.591**	.133	.175	-.181
B28_R	.207	.091	.072	**.749**	.101	-.022
B19_R	.123	.186	.159	**.701**	-.015	.248
B34_R	.160	.065	-.015	**.570**	.232	-.104
B2_R	-.188	.030	.290	**.518**	-.027	.227
B33_H	.085	.090	-.062	.126	**.722**	.060
B26_H	.049	.070	.210	-.008	**.652**	-.022
B29_H	.138	-.097	.053	.171	**.575**	.251
B15_S	.040	.079	-.024	.174	-.064	**.730**
B21_S	-.005	-.002	-.103	.079	.210	**.653**
B10_S	.256	.045	.058	-.122	.082	**.479**

추출 방법: 프린시펄 구성요소 분석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멕스, a. 7 반복에서 회전이 수렴

13) SPSS ver. 2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요인분석시 교차적재(Cross Loading)된 관측변수들은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사용된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표 A2] 국가별 성격유형분포[14)]

본 표는 국가별 성격유형에 따른 퍼센트와 표기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위의 영문은 MBTI®의 성격유형이며, 아래의 괄호안은 분포 퍼센트를 의미한다. 그리고 ● 은 하나당 1퍼센트를 의미하는 표기이다.

Panel A. 미국, Form M 대표 유형 표본 N: 3,009

ISTJ (11.6) ●●●●●●●●●●●●	ISFJ (13.8) ●●●●●●●●●●●●●●	INFJ (1.5) ●●	INTJ (2.1) ●●
ISTP (5.4) ●●●●●	ISFP (8.8) ●●●●●●●●●	INFP (4.4) ●●●●	INTP (3.3) ●●●
ESTP (4.3) ●●●●	ESFP (8.5) ●●●●●●●●●	ENFP (8.1) ●●●●●●●●	ENTP (3.2) ●●●
ESTJ (8.7) ●●●●●●●●	ESFJ (12.3) ●●●●●●●●●●●●	ENFJ (2.5) ●●●	ENTJ (1.8) ●●

Panel B. 한국, Form M 표준화 표본 N: 3,623

ISTJ (14.7) ●●●●●●●●●●●●●●	ISFJ (8.4) ●●●●●●●●	INFJ (3.8) ●●●●	INTJ (5.5) ●●●●●●
ISTP (4.7) ●●●●●	ISFP (5.9) ●●●●●●	INFP (6.5) ●●●●●●●	INTP (4.3) ●●●●
ESTP (4.4) ●●●●	ESFP (5.3) ●●●●●	ENFP (8.4) ●●●●●●●●	ENTP (3.5) ●●●●
ESTJ (10.7) ●●●●●●●●●●●	ESFJ (6.6) ●●●●●●●	ENFJ (3.5) ●●●●	ENTJ (3.8) ●●●●

14) 출처: MBTI® 성장프로그램 슬라이드, 김정택, 심혜숙, ASSESTA (일반강사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만 제공되는 교육자료)

[표 A3] 성격유형분포 비교[15)]

본 표는 MBTI®의 성격유형에 따른 비율을 2004년 MBTI 데이터 뱅크 자료와 본 연구의 Sample을 비교한 자료이다.

Panel A. 19세~24세 대학교 재학 여성

성격유형	MBTI® DATA BANK		SAMPLE(STUDENT)		차이 (A-B)
	비율(A)	누적비율	비율(B)	누적비율	
ISTJ	14.8	14.8	9.9	9.9	4.9
ISFJ	6.8	21.6	7.1	17.1	-0.4
INFJ	2.4	24.0	2.5	19.6	-0.1
INTJ	2.8	26.8	2.8	22.4	0.0
ISTP	7.2	34.0	8.1	30.4	-0.9
ISFP	7.5	41.4	9.9	40.4	-2.4
INFP	5.1	46.5	3.7	44.1	1.4
INTP	3.2	49.8	3.1	47.2	0.1
ESTP	7.7	57.5	5.9	53.1	1.8
ESFP	9.1	66.6	6.8	59.9	2.3
ENFP	7.0	73.6	8.7	68.6	-1.7
ENTP	3.6	77.1	6.5	75.2	-2.9
ESTJ	11.8	88.9	12.7	87.9	-0.9
ESFJ	6.9	95.8	7.5	95.3	-0.6
ENFJ	2.0	97.9	1.9	97.2	0.1
ENTJ	2.1	100.0	2.8	100.0	-0.7

MBTI® DATA BANK N: 12,264 , SAMPLE(STUDENT) N:322

Panel B.[16)] 19세 이상 남, 여

성격유형	MBTI® DATA BANK		SAMPLE(VVIP)		차이 (A-B)
	비율(A)	누적비율	비율(B)	누적비율	
ISTJ	15.7	15.7	35.6	35.6	**-19.9**
ISFJ	5.8	21.5	3.4	39.0	2.4
INFJ	1.6	23.2	0.0	39.0	1.6
INTJ	2.8	26.0	2.7	41.7	0.1
ISTP	9.5	35.4	4.1	45.8	5.4
ISFP	8.4	43.8	2.1	47.9	6.3
INFP	4.8	48.6	0.0	48.6	4.8
INTP	3.5	52.1	0.7	54.1	2.8
ESTP	9.3	61.4	5.5	59.6	3.8
ESFP	9.2	70.6	5.5	61.0	3.7
ENFP	6.2	76.8	1.4	62.4	4.8
ENTP	3.6	80.3	1.4	89.1	2.2
ESTJ	11.3	91.6	26.7	97.3	**-15.4**

15) MBTI 데이터 뱅크(2004), 어세스타, 한국MBTI연구소 참조

16) SAMPLE(VVIP)에서 특정 성격유형(ISTJ, ESTJ)이 MBTI® DATA BANK 모집단에서 나타난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ESFJ	4.8	96.5	8.2	98.7	-3.4
ENFJ	1.5	98.0	1.4	100.1	0.1
ENTJ	2.0	100.0	1.4	100.1	0.6

MBTI® DATA BANK N: 314,583 , SAMPLE(VVIP) N:144

[표 A4] 성격유형분포[17] 비교

본 표는 MBTI®의 성격유형에 따른 주기능과 부기능 그리고 3차기능과 열등기능을 구분한 자료이다.

성격유형	주기능	부기능	3차기능	열등기능
ISTJ	S	T	F	N
ISFJ	S	F	T	N
INFJ	N	F	T	S
INTJ	N	T	F	S
ISTP	T	S	N	F
ISFP	F	S	N	T
INFP	F	N	S	T
INTP	T	N	S	F
ESTP	S	T	F	N
ESFP	S	F	T	N
ENFP	N	F	T	S
ENTP	N	T	F	S
ESTJ	T	S	N	F
ESFJ	F	S	N	T
ENFJ	F	N	S	T
ENTJ	T	N	S	F

[표 A5] Holt and Laury(2002)의 위험선호도 구분 및 위험회피

Number of Safe Choices	Relative Risk Aversion for $U(x)=(x^{(1-r)})/(1-r)$	Risk Preference Classification
0-1	$r < -0.95$	highly risk loving
2	$-0.95 < r < -0.49$	very risk loving
3	$-0.49 < r < -0.15$	risk loving
4	$-0.15 < r < 0.15$	risk neutral
5	$0.15 < r < 0.41$	slightly risk averse
6	$0.41 < r < 0.68$	risk averse
7	$0.68 < r < 0.97$	very risk averse
8	$0.97 < r < 1.37$	highly risk averse
9-10	$1.37 < r$	stay in bed

17) 출처: MBTI® 성장프로그램 슬라이드, 김정택, 심혜숙, ASSESTA (일반강사용 전문교육자료)